



SARAZING

시론 02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와의 만남

신진에게 듣는다 · 사랑에서 03

진정성(眞情性) 있게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사...
사랑에서 _ 더 나은 건축디자인과 기술 발전을 향해..^^

광주 지역 뉴스 04-05

광주건축사회, 2024년 갑진년 시무식 및 장학금 전달식 진행
광주 동구청, 광주건축사협회와 협업... 안전 실천 문화 확산
광주건축사회,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선거후보자 호남권 토론회 개최

전남 지역 뉴스 06-07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2천만원 기탁
전라남도, 빈집정비사업 목포시 최우수·화순군 우수상
전남건축사회, 2023 전남 건축인의 밤

전북 지역 뉴스 08-09

전라북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에 이성열 건축사 당선
전라북도건축사회 2024년 신년하례회 개최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성금 500만원 전달

종합뉴스 10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전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공공도서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설계경기 11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 건축 설계 공모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
한 장의 사진 _ Nakanoshima Children's Book Forest
신년 회초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01.170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와의 만남



이동희 논설위원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odonghee@hanmail.net

- 1982~1985
영월공업고등학교 건축과
- 1986~1994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1994~1999
오이타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2000~2002
충주대·세명대·대원과학대 강사
- 2002~2005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 2005~2023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0~2011
펜실베이니아대학 방문교수
- 2015~2016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8~2019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 2019
한국농촌건축대전 운영위원장
- 2019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집행부위원장
- 2019~2021
고흥군 청년농촌주택조성사업 총괄계획가
- 2022~2024
대한건축학회 사진연구회 회장
- 2023~2024
한국농촌건축학회 부회장

2022년 12월 28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1931~2022)가 별세했다. 그에 앞서 2019년 3월 5일 미국 하얏트재단은 그를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소자키는 1960년대 일본의 현대건축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 '메타볼리즘(신진대사)' 건축 운동의 주역이었다. 기하학적 형태에 다양한 건축재료를 사용해 첨단공법으로 구축하는 그의 작품특징을 혹자는 '글로벌 아키텍처'라 칭한다. 도시와 건축을 변화하는 유기체적 생명 시스템으로 보고, 늘 새로운 형태와 재료와 구조를 창출하려 노력했으며, 전통과 현대 또 국가와 지역을 유유히 넘나들던 건축가! 그래서 그의 건축세계는 한 마디로 특징짓기가 어렵다. 그저 무국적이면서도 다국적인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할 수 밖에...

내가 이소자키(존칭 생략)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작고하기 꼭 4년 전인 2018년 12월 22일, 그의 고향 규슈 오이타(大分)에서 열린 강연회 및 전람회 행사장에서였다. 우연히 대학원 시절의 은사님 페이스북에서 관련 소식을 접하고, 급히 비행기와 호텔을 수배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그러나 행사장 면적에 비해 참석 희망자가 너무 많았고, 예약을 미리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입장이 어렵겠다는 전갈을 받았다. 하지만 그날 대담을 맡은 은사님의 적극적인 주선과 예전에 쌓아둔 인맥이 효력을 발휘해, 전면 내빈석 바로 뒤에 착석하는 행운을 얻었다. 행사장은 이소자키가 1963년에 설계해 1966년에 완공한 구)오이타현립도서관으로, 1998년부터 아트플라자로 개칭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및 이소자키 아라타의 작품전시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그날 강연회 주제는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폐허의 오이타로부터의 출발>이었고, 약 130명에 이르는 2층 아트홀 바닥이 300여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강연회는 사토 세이지(佐藤誠治) 오이타대학 명예교수가 사전에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가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소자키의 전 생애를 시기별로 나눠 그의 대표작품과 건축철학을 오이타현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는 내용이었다. 구순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옛일을 또렷이 기억하며, 형형한 눈빛과 명확한 말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건축가의 열정과 카리스마는 금세 좌중을 압도했다. 강연은 점점 분위기가 달아올라 예정했던 1시간 반보다 1시간이나 더 이어진 후에야 끝이 났다.

나는 강연 후 잠깐만이라도 이소자키와 인사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강연자의 입장과 퇴장에 의한 절차가 따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강연이 연장되어 잠시의 휴식 시간이 마련되었고, 나는 극적으로 이소자키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가지고 갔던 예전의 사

진을 보여주며 기억을 환기하도록 했고, 그는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때를 잘 기억해 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고 한일 양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마치 철사를 구부린 듯한 그 특유의 사인을 정성스럽게 해주었고, 보좌진에게 사진을 꼭 받아두라는 부탁을 한 후 다시 무대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은 이소자키가 고향 오이타에서 행한 마지막 강연이 되었다.

나중에 이소자키 보좌진에게 건네준 사진은 1998년 8월 2일에 촬영한 것이다. 건축사의 날 기념행사로서 <오이타현이 낳은 근대건축가 3인전과 특별강연회>가 아트플라자에서 열렸을 적에, 강연을 끝낸 이소자키와 전시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찍은 것이다. 그곳에는 오이타현이 근대에 배출한 건축가 '타키 다이키치(瀧大吉, 1861~1902), 요시타케 토우리(吉武東里, 1886~1945),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1931~2022)' 3인에 대한 소개와 설계작품이 패널 및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이소자키가 동경대 재학시절에 그린 도면을 인상 깊게 보았으며, "선생님 건축을 보러 한국에서 오이타에 견학을 많이 온다"라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 그때가 일본건축학회상 수상작인 구)오이타현립도서관이 아트플라자로 바뀌 개관한 직후였으니, 그로부터 딱 20년 후 그 건축물에서 다시 이소자키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강연장을 빠져나오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지 못했던 때문이다. 한편론 백발이 성성한 노 건축가의 그 관록 있는 얼굴을 제대로 촬영해 두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 진행요원에게 강연자의 행방을 문의하니 지금 티브이 방송사와 인터뷰 중이며, 끝나면 바로 지역 유자들이 기다리는 식사 장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실례가 될까 잠시 고민을 했으나, 어쩌면 그분을 뵈는 마지막 기회일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다. 이윽고 인터뷰실 앞 복도에서 다시 만나 인사를 하니 반갑게 맞아주며, 미리 봐두었던 초록색 벽체를 배경으로 여러 자세의 사진 촬영에 응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보좌진들로부터 시간이 없으니 서두를 것을 재촉 받았으나, "기다려요. 우리 20년 만에 만난 거니까요"라며 오히려 느긋하게 시간을 배려해 주었다.

나는 이소자키를 만날 때마다 넓디넓은 그의 건축적 활동 영역만큼이나 계층 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호방하면서도 진지하게 사람을 응대해주는 느낌을 받곤 했다. 또한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멋진 건축가로 마음속에 남아 있다. 그날 나와 헤어진 후 아트플라자 2층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긴 경사로를 따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가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예전에 '이소자키와 오이타와 나'란 제목으로 책을 쓰려다가 시간을 못 내서 덮어둔 원고를 뭉고려미 바라보며, 그가 떠난 일주년을 맞이하여 새삼 그를 추억해본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임태형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박홍근,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전담기자 김중문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법,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김화진, 장기섭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발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진정성(眞情性) 있게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온도 장기섭 건축사와의 만남



장기섭 건축사

건축문화사랑 3면 '인터뷰'는 긴 시간의 노력 끝에, 사무소를 개소한 건축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건축업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본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개소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는 건 건축설계를 업으로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건, 저는 문제를 몸으로 느껴야 움직이는 동력이 생기는 사람이란 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취득하고 1년 후 사무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망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40만원짜리 월세 사무실에 각자 컴퓨터만 하나씩 들고 와서 사무소를 오픈했습니다.

운명을 고려치 않고 거의 재능기부 하다시피 민간 설계를 계약하기도 하고, 성사가 안 될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매달리고 하고, 닥치는 대로 생존을 위해 일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헛수로 벌써 4년차가 되었는데 지금의 소감은 힘들지만 감사하단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고, 많지는 않지만 매달 팀원들과 월급을 가져갈 수 있고, 대단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우리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분들, 같이 열심히 해주는 팀원들, 모르는 게 있을 때 전화하면 받아 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보다도 수주와 경영, 즉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개소 4년차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어려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마 많은 신진 건축사 분들께서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민간 건축설계 부분에서 그 어려움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지만 좀처럼 설계용역 대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

다. 그러다 보니 저가 수주가 이뤄지고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되면서, 일은 많지만 사무실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바쁘게 회사통장의 잔고는 왜 제자리인지 모르겠다며 저희끼리 웃으며 하소연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된 프로젝트를 돌이켜 보면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중하여 일할 수 있는 적당한 프로젝트만으로 소규모 사무실이 유지되고,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디자인,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비단 저희 건축사의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완성도 높고 안전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의뢰인도 고품질의 건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 전통건축을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끄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버텨오며 보기 좋게 시간이 스민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전통건축은 자연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이가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고 드나들며 움푹 파이고 닳아진 툇마루와 문지방, 철물이 서로 부대끼며 얹어진 문고리를 보면 그것이 오랜 세월 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짙은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마 전통건축이 만들어지는 건축방식과 재료들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전통건축과 우리를 이어주는 몸에 새겨진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십대 초반 즈음에 다녀온 안동에서의 기억, 서울 방문길에 들른 창덕궁과 종묘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소재원 등에서 느낀 감정들이 아직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건축에 대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진정성 있게 건축을 하고 싶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물에서 나오는 감동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팀을 밖에서 봤을 때 '진정성 있게 건축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계림동 근린생활시설

나주 노안면 단독주택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

사랑에서 _ 일백여덟 번째

더 나은 건축디자인과 기술 발전을 향해..^^

갑진년 새해가 왔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날이지만 숫자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 줄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경험했지만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땅을 일구고 가꿔야 하는 건축설계는 인간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건축사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디자인과 기술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건축 디자인의 혁신과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습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3D 프린팅, 가상 현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세부적인 디자인과 건축프로세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새 시대에는 건축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인 설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재료와 기술의 발전,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축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사회 환경 문제를 고려한 건축설계가 요구됩니다. 건축사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입니다.

셋째로는, 건축사는 끊임없이 학습과 자기개발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지식 습득과 연구, 협력과 소통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건축설계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다원화 된 세계에서 우리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맞추어야 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갑진년 2024년 새해에, 건축설계의 미래는 더 나은 디자인과 기술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미래의 건축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해인 2024년, 우리는 더욱 희망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축사님들은 더 나은 건축 디자인과 기술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도전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가며, 건축문화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각오를 다지는 한 해가 됩시다. 감사드립니다.

추원호 건축사(전주.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윤이뜰

장기섭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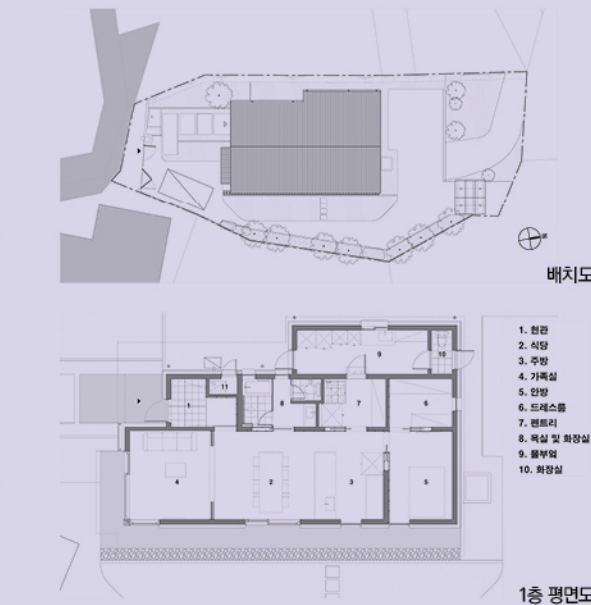
광주 북구 태봉로 87, 4층 401호
Tel. 062-513-7283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230번지 / 대지면적 : 609.45㎡ / 건축면적 : 115.56㎡ / 연면적 : 101.81㎡
건폐율 : 18.96% / 용적률 : 16.71%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사진 : 윤준환



“ 건축주는 퇴직 후 아내와 텃밭을 가꾸며 살기 위해 오래전 구입해둔 땅을 들고 찾아오셨다. 대지는 남북으로 긴 형태. 동쪽으로 낮은 논밭이 펼쳐진다. 복잡한 도심 속 아파트 생활을 접고 아내와 돌이켜 새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부부에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다. 많은 것들을 덜어낸 단순한 공간에서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지 않을까. 요리 연구가인 아내는 식당이 집의 중심이길 바랐다. 손님이 오면 자연스레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공들여 만든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했다. 식당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안방, 남쪽에는 가족실을 배치하고, 서쪽에는 유틸리티 실들을 배치하였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계획하였다. 방은 최소화하고, 평소 거실로 이용되던 가족실은 손님이 오면 방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작나무 미닫이 문으로 한쪽 벽면을 구성했다. 내부 마감은 노출콘크리트, 외벽은 롱브릭 타일과 골강판으로 마감하였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집을 제안했다. ”



광주건축사회, 2024년 갑진년 사무식 및 장학금 전달식 진행

지난 1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건축사회(정인채 회장)는 지난 1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회원 159명과 광주광역시 동구청 김선희 전문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갑진년 사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사무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회원 상호 간의 신년 인사와 덕담, 임직원 인사 등과 공사감리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송원대에서 추천받은 5명의 건축관련 학과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신년 떡 케이크 커팅식, 수첩 배부 등 행사를 진행했다.

정인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회장 취임 후 약 3년이 흘러 마지막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남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회원님들이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 광주건축사회와 협업... 안전 실천 문화 확산

건축공사 감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성료

광주 동구청은 지난 2일 '주민 안전을 제1가치로 하는 동구' 일환으로 광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건축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건축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광주 건축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건축사·감리자 등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자의 업무 역량과 안전 관리능력 강화 등을 주제로 광주 동구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김선희 전문관이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단계별 관리 요령, 감리자의 종류와 배치, 구조기술사·건축설비기술사 등과 협업 노하우, 감리자가 관리해야 할 품질·안전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교육 종료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계획 및 공사감리자 업무 가이드라인'을 배부하며 현장 안전 관리 실천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244582번을 참조하면 된다.

끝으로 정인채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 선거후보자 호남권 토론회 개최

지난 12월 21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시도건축사회가 주관하는 권역별 후보자 토론회가 영남권 토론회에 이어 광주·전북·전남·제주지역을 아우르는 호남권 토론회가 지난 12월 21일 오후 2시에 광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발언, 좌장이 제시하는 공통질문에 대한 응답, 토론회 현장 참가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대로 33대 회장 선거 당시 온라인 토론회에 그쳤던 점에 주목해 이번에는 권역별 후보자 토론회를 4회 준비했다"며 "토론회가 후보자의 변별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선거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 선거는 1월 17일부터 1월 18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전자투표서비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선거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정

정부 사업 추진... 역세권으로 수요는 많으나 개발성 낮은 곳부터



광주 동구가 지난달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소태역 인근 1만 7,0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도심 공공주택 5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는 많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주도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및 LH와 적극 협력해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등 추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동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1인 가구와 청년 등을 위한 양질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으로 총 공급 규모는 8만 8,000호다. 지난 22일 10차 후보지로 경기 시흥과 부산 금정, 광주 동구 등 3곳이 새로 선정됐으며 공급 규모는 총 4,363호, 면적은 13만9,000㎡다.

광주 서구청, 건축민원 전문 상담실 운영

매주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전문 건축사 무료상담...

광주 서구청은 어려운 건축 관계 법령과 인허가 절차 등 궁금증 해소와 편익 제공을 위해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광주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30명이 한 명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구청 6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내용은 건축 관계 법령과 건축 인허가(허가, 착공, 사용승인) 절차 안내, 건축 설계·시공·감리 등에 필요한 비용, 공사 진행방법, 건축공사장으로 인한 피해관련 상담과 건축 관련 분쟁 상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간단한 민원서류(도면 등) 작성 대행,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와 추진허가 가능 여부 검토 등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건축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건축민원 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회장, 감사선거 등록신청 공고

본 공고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광주건축사회(정인채 회장)는 3월 22일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제18대 회장 및 2024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12일까지 진행했다. 이와 함께 본 공고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본 등록에 등록할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입후보 소견서, 이력서, 서약서, 후보자 추천서(회장 : 30인 이상 / 감사 : 선거인 20인 이상), 선거공보 원고, 기탁금 잔액(회장 : 250만원 / 감사 : 5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장 심상봉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해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7회 정기총회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무등파크호텔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광산구 신창동에 신청사 건립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공사 예정... 2028년 완공 목표

광주교육청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청사 전환배치추진단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청사 건립 사업 설명회와 타당성 검토, 기존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청사 전환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를 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는 연면적 2만8,143㎡이며, 신청사는 사업비 1,222억원이 투입, 설계공모와 시설 공사를 거쳐 2028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회원동정

• 결혼

- 권은지 건축사 / 온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4년 1월 6일(토)

• 부고

- 이해란 건축사 / 나래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4년 1월 4일(목)

- 김시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운재 / 빙부상 - 2024년 1월 5일(금)

- 안천수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누리 / 모친상 - 2024년 1월 9일(화)

- 김현중 건축사 / 미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4년 1월 15일(일)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전) 광주광역시 시의회 자문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소호정자

박세진 건축사 / (주)에가 건축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3길 7, 1층
 Tel. 061-685-6925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1202-2번지 / 대지면적 : 298.4㎡ / 건축면적 : 175.61㎡ / 연면적 : 544.22㎡
 건폐율 : 58.85% / 용적률 : 136.41%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STO, 모노블럭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2천만원 기탁

도내 대학 장학금·건축설계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한형민)는 지난 12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하였다.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 한형민 전라남도건축사회 회

장, 고석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1965년에 설립된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 등 12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되어 건축문화 발전과 기술 향상 및 건축사 권위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총 6천만원을 기탁하고, 도내 5개 대학 건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전라남도건축사회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주택에 대한 설계 재능기부와, 도내 저소득층 가정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건축민원상담,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건축사 진로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왔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전라남도건축사회에 감사하다”며 “장학금은 전남의 인재가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및 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www.jntle.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1-285-9484)로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 빈집정비사업 목포시 최우수, 화순군 우수상

2027년까지 매년 2,000가구 빈집 정비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총 2만1,766동의 빈집(동지역 5,048동, 읍면지역 1만6,718동)이 있으며 이 중 1만3,034동이 철거 대상이다.

빈집은 경관과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 쓰레기 투기, 지역 활력 저하 등 문제점이 많다. 지자체별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제공, 정비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비 속도는 더디기에,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0억원을 들여 매년 2,000동씩 빈집 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빈집 정비 시·군 사업 가운데 효과성이나 독창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빈집정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평가위원회에서는 최우수상에 목포시, 우수상에 화순군, 장려상에 여수시를 선정했다.

목포시는 빈집을 철거한 공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거나 꽃밭을 조성해 도시경관을 개선하였고, 화순군은 총 130동의 빈집을 철거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정비 목표의 100%를 달성했다.

또한 여수시도 빈집을 직접 매입해 철거한 후 공공시설로 제공한 부분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건축사회, 2023 전남 건축인의 밤

지역 내 건축관계자들의 소통의 장 마련...



전라남도 건축사회(한형민 회장)는 지난 19일 중흥골드스파리조트 골드동 대연회장에서 건축사, 외부초청인사, 건축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남 건축인의 밤’을 개최했다.

한형민 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축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님들의 화합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개식공연을 시작으로 유공공무원 감사패(전라남도건축사회장), 전라남도교육감 감사장, 관내건축학과 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하였다.

전라남도 해남군,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건축인허가, 안전관리 등 총 6개 항목 시·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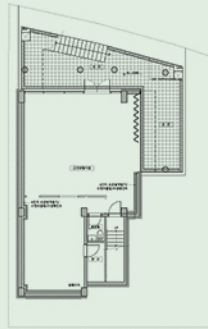
해남군이 2023년 전라남도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인허가, 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총 6개 항목 22개 지표를 기준으로 도내 22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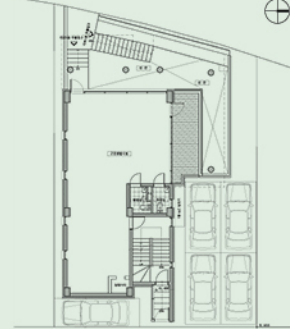
대지는 햇빛이 잘 들고 동·남쪽으로 상부층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매력적인 대지이다.

똑같은 가로 속에 도심 속 새로운 경험을 위한 선큰공간을 계획하고 지하층 상가에서는 선큰을 통한 일조유입을 통해 상가 이용자에게 쾌적함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주택공간에서는 동쪽 바다를 향해 테라스를 형성하여 공동주택에서만 생활하던 건축주에게 다양한 생활과 경험을 선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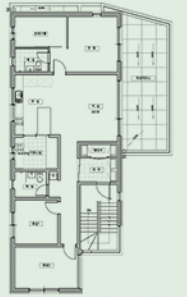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해남군은 건축 인허가, 건축 심의 등 민원 처리 기간을 100% 준수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관리계획 수립,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등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축물대장 오류 정비를 통해 건축물대장의 품질과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위반건축물 관리 점검 강화로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건축사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순천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27년 완공으로... 30개 기업 입주 예정



전남 순천시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

지난 달 순천시는 승주읍에 추진 예정인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설계 공모 결과 (주)휴먼플랜, (주)공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설계공모는 지난 9월 4일 공고 후 최종 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승주읍 미생물센터에서 13일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심사가 이뤄졌다.

당선작은 생태 수도 순천의 숨결을 담은 디자인으로 다양한 외부공간 및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게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축물은 현재 승주읍 다목적회관 부지에 연면적 9,937㎡ 규모로 30개 기업 입주 공간·공유 기계 장비 공간·휴게 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2027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장성군, 청년센터 건립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10월까지 착공할 예정

전남 장성군이 청년 활동의 거점시설로 계획한 '청년센터' 건립을 새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계



발과 여가선용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공간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청년센터가 없던 장성군은 민선 8기 김한중 군수 취임 이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청년센터 건립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면서 센터 건립이 가시화됐다.

센터 건립에 착수한 장성군은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장성을 영천리 주민회관 인근에 부지를 확보했다.

장성 청년센터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10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규모는 부지면적 1,690㎡, 건축면적 600㎡, 지상 2층 건물로 신축된다.

센터 내에는 청년 소통 공간을 비롯해 예비창업공간, 다목적홀, 미디어 스튜디오 등을 갖추게 된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이은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위드 / 전남 여수시 시청서1길 6, 3층
- **재입회**
 - 공미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서담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 72-2, 3층
 - 박성석 건축사 / 국토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청별길36, 1층
- **전입**
 - 이미란 건축사 / 더엠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교육길13, 스마트지식산업센터 D7동 406호
- **변경(소재지)**
 - 선명숙 건축사 / 큐브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2길 60, 201호
 - 정영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현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2길 9
 - 박종경 건축사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눈소5길 35-6, 마동
 - 백종민 건축사 / 라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1길 21-9, 201호
- **결혼**
 - 박동영 건축사 / (유)천년 건축사사무소 / 장녀결혼 - 2023년 12월 16일(토)
 - 서계원 건축사 / 우리건축사사무소 서건축 / 차녀결혼 - 2024년 1월 7일(일)
- **부고**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4년 1월 1일(월)

전라북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에 이성열 건축사 당선

지난 12월 21일 전주 그랜드 힐스톤에서... 회장에 이성열 건축사, 감사에 이응록 건축사 선출



이성열 신임회장



이응록 신임감사

전북건축사회(박진만 회장)은 지난 12월 21일 전주 그랜드 힐스톤 5층 그레이스홀에서 총회원 506명 중 3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이성열 건축사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감사에는 건축사사무소 이건 이응록 건축사를 선출하고, 이사 및 대의원은 당선된 회장에게 위임해 선출하기로 했으며, 임기는 2024년 3월 정기총회 이후 임기가 시작된다.

신임 이성열 회장은 전주공고 건축과와 전주공업전문대학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대표와 전라북도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끝으로 이성열 회장은 "현재 건축사업계의 경우 설계·감리 업무대가 기준의 개선 없이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은 과도한 책임을 건축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원들의 업무강도가 가중돼 건축생태계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앞으로 협회는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 업무 대가의 기준'과 '감리 분리 확대'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2024년 신년하례회 개최

지난 1월 4일 전라북도건축사회관에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지난 1월 4일(목) 전라북도건축사회관에서 2024년도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박진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우리 건축사회도 회원들의 힘을 모아 특별한 전라북도건축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한 후,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밝은 웃음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밝은 웃음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신년하례회에는 역대 회장과 지역회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건축사회의 희망찬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타봉식에 이어 협회 및 회원 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하는 케익 절단과 회원 상호 간의 신년 인사와 덕담과 아울러 갑진년 케치프레이즈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이어 점심으로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시종(始終) 화기애애(和氣霏霏)한 분위기 속에서 신년하례회를 마쳤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성금 500만원 전달

지난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들에게 사랑 실천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성열)은 지난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5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 건축상담 재능기부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성열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올해도 어려워진 경제 환경 속에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매년 지역 발전과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해 주신 전주지역건축사회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성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지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회원의 품위 보전 및 권익증진, 친목도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전라북도 무주 오연재, 2023년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 금상

지역의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 장려

전라북도 무주군은 2023년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에 무주군 설천면에 소재해 있는 '오연재(五然齋)'를 선정했다.

무주군의 아름다운 건축상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우수한 건축물



삼대애(三代愛)
장필수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완산구 메너미2길 16 / Tel. 063-253-1406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82-2번지 / 대지면적 : 963.00㎡ / 건축면적 : 115.20㎡ / 연면적 : 198.84㎡
건폐율 : 11.96% / 용적률 : 20.65%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라임스톤, 치장벽돌, 징크패널





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행했다.

공모 결과 주거 부문 2점의 후보 작품이 접수됐으며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 증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 1점

(무주군 설천면에 소재해 있는 '오연재(五然齋)')를 선정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건축물이야말로 무주다움을 나타내고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건축문화 증진과 무주만의 건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고창군, 터미널 혁신지구 올해부터 착수

군 단위 최초로 18층 주상복합 들어설 예정...



전북 고창군은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2023년 부지매입과 사업계획변경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

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로, 총사업비는 1,777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42억, 매칭군비 125억원, 기금 200억원, 공공투자 1,160억원)으로 변경·확정됐다.

군은 터미널 뒤편 상가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부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보완하여 부지활용도를 높여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넓어진 사업부지에는 교통시설과 공동주택을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통합 건축하게 되며, 저층부는 터미널과 청년창업공간, 유기농연구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5층부터 18층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축한다.

또한 현재 터미널 옆 주차장 부지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지어 터미널과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원활하게 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민자유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빠르면 2024년 3월 중에 LH와 공동사업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동시행 협약이 이

루어지면 공동주택 사업부분에 대한 재정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될 것이며, 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고창터미널은 상주인구 400명, 일일 시설이용자 2,000명 등 고창군의 중심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부안군, 2024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월 2일까지 신청접수... 슬레이트 철거 350만원 지원

부안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사업과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에서 8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지붕은 25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350만원이다.

부안군은 2024년 주거용 72동, 비주거용 18동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문화예술 지역활동가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 조건인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동 지원한다.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 사업은 빈집을 수리 또는 철거 후 신축할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최소 2년 동안 부안군에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업으로 10동을 지원한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안 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허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반로 367-1, 204호

• 결혼

- 백종호 건축사 / 호성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3년 12월 16일(토)

- 조익환 건축사 / 성도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3년 12월 30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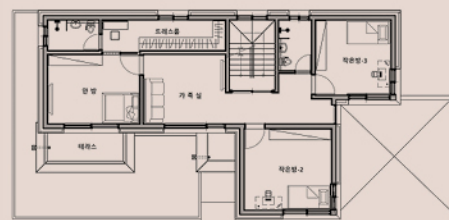
• 부고

- 이영민 건축사 / 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3년 12월 24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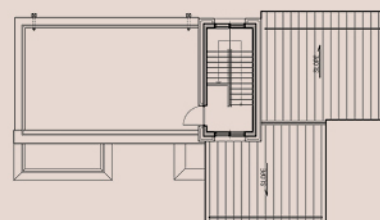
- 심재준 건축사 / 현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3년 12월 27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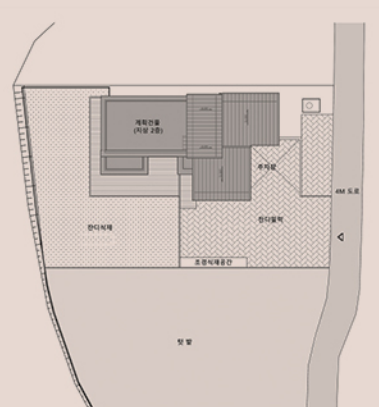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배치도

어머니와 따로 살던 부부와 아이들은 삼대가 서로 사랑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집을 꿈꾸었다.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대지를 마련, 드디어 꿈꿔왔던 집을 구상하게 되었다.

삼대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마당과 큰 거실, 좀 더 따뜻한 집이 될 수 있는 남향배치와 두꺼운 단열재를 요구, 계획 시 반영하게 되었고,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전시

서울 소재 14개 대학교 건축학과... 선정한 예비건축가들의 작품 40개가 전시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9)에서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전시를 오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는 미래세대 건축가들이 건축 전공 대학(원)생들이 서울을 캔버스 삼아 혁신·보존·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한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내일을 전시로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 소재 14개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선정한 예비건축가들의 작품 40개가 전시된다. 각각의 작품은 서울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도시에서 누리는 일상

들을 새롭게 재구성한 것으로, 전시장 전체를 두른 패널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로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의 내일을 만들다' 전시공간은 미래세대의 건축가들이 서울에 대해 갖고 있는 미래비전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무대로 다양한 생각을 지닌 개인과 전문가, 시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래의 요구를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차세대 건축가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서울의 내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공공도서관 들어선다

지붕 전체가 공원이 들어서는 서울의 랜드마크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2029년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의 2.5배 규모인 대규모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 691-3 일대에 추진 중인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설계안을 확정했다.

지난 8월부터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해왔는데, 소솔 건축사사무소(왕성한·윤종원 건축사) 콘소시엄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 다음달 계약을 맺은 뒤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도서관은 부지만 1만 6,899㎡에 달하고, 건물 전체 바닥면적은 2만 5,000㎡, 야외마당은 1만㎡ 규모다. 옛 서울시청사를 활용한 서울도서관의 전체 바닥 면적이 1만 8,711㎡, 순면적이 9,499㎡임을 고려하면 대규모 프로젝트인 셈이다. 서울시는 예정 설계비 87억원, 공사비 1,6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선정된 설계안을 보면, 서울시립도서관은 목조가 가미된 건축기법으로 지어지며 지붕을 온전히 공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도서 열람뿐 아니라 연중 문화예술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커뮤니티'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있는 미래 공간환경 구축

사회·경제 구조와 시장 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고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해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BIM(빌딩 정보 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및 창의성 제고를 통해 기존 노동력 기반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의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품격 있는 공간환경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구조 합리화, 시장 고도화 및 정보 활용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건축서비스·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산업 구조 개선, 시장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활동 기반 마련 등을 건축서비스산업 구조 합리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련 행정 절차 및 제도 개선, 건축서비스 창의성 보호기준 마련 등을 산업 구조 개선의 세부 과제로 제시했고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기회를 정립하고 설계공모제도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건축물 안전 및 품질확보 등 건축사업 품질관리 체계 강화 등의 방안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고도화'를 위해 건축서비스 분야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및 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산업 주체 육성 및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스마트 건축서비스 기술 개발 기획 및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 건축 분야 BIM 전문가 양성과 보급 확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고 강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로 건축서비스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축서비스 기반 창작활동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공간 잇는 건축 전시 '이음 지음'

7월 21일까지 전시... 도시 경관 연결·공존 주제로



'도시 건축'을 주제로 다양한 융·복합콘텐츠가 선보이는 '이음 지음' 전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 2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음 지음'은 건축의 '지음'(Construction)과 시공간의 연결적 '공존성(Coexistence)'을 '이음'(Connectivity)이라는 의미에 담아 조형적으로 시각화한 전시로 올해 7월 21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선 '도시의 경관: 연결과 공존'을 주제로 한국,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독일, 스위스, 스페인, 독일 출신의 현대미술가 19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총 4개의 전시로 1전시는 '달다/나에게 달다'에서는 조영각 작가가 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적 풍경을 대조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의 표면을 들춰내는 작품 '병렬 울림'을 선보인다.

2전시는 '있다/우리를 있다'에서는 셀레스트 부르시에 무주노 작가가 180개의 백자 그릇이 원형의 푸른 수조에 떠있는 '클리나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연결되는 공간을 보여준다.

3전시는 '쌓다/대화를 쌓다'는 카도 분페이 작가가 '다트 게임'을 통해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 사회의 초상을 재치 있게 풍자하며, 4전시는 '짓다/꿈을 짓다'에서는 천대광 작가가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빛 마을처럼 보이는 '중첩된 시간과 겹쳐진 장소들'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은 "재료가 달고, 이어지고, 쌓여서 올라가는 건축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과도 비슷하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세상 역시 우리가 서로에게 달고, 이어지고, 관계를 쌓아가며 짓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반석기초이앤씨(주)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GeoCon (방재신기술) 팽이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 건축 설계 공모

옛 나주극장은 나주 최초의 영화관으로 근대 정치·문화·예술 교류와 소통의 장소를 시민과 여행자들의 지역 문화향유 및 교류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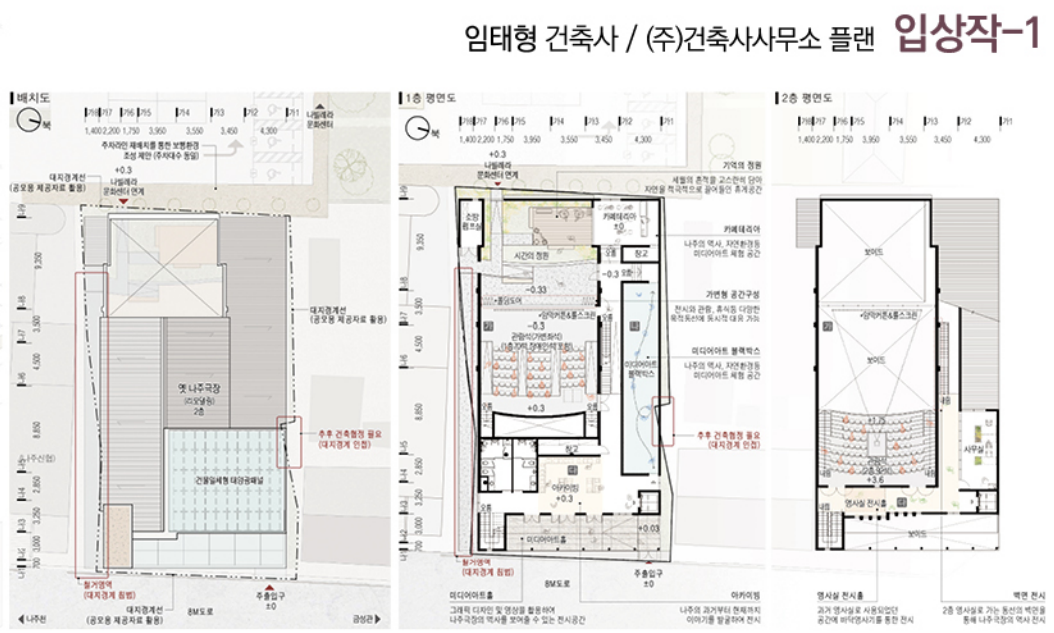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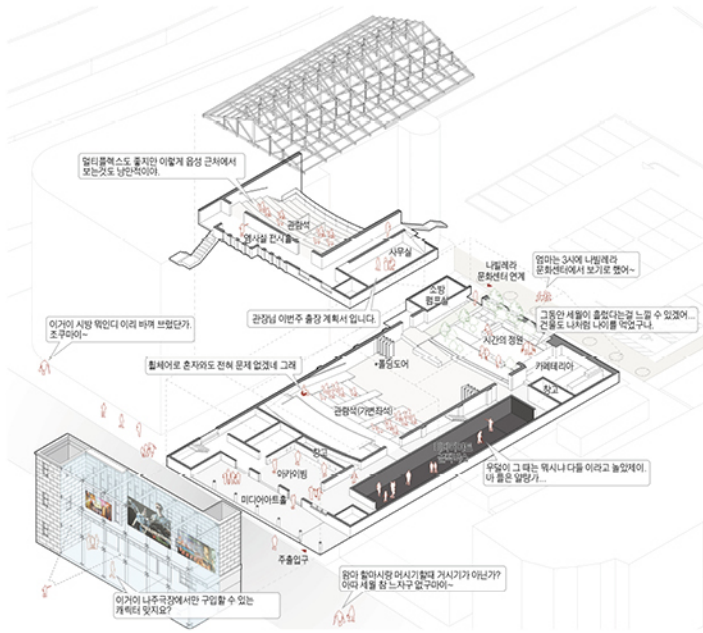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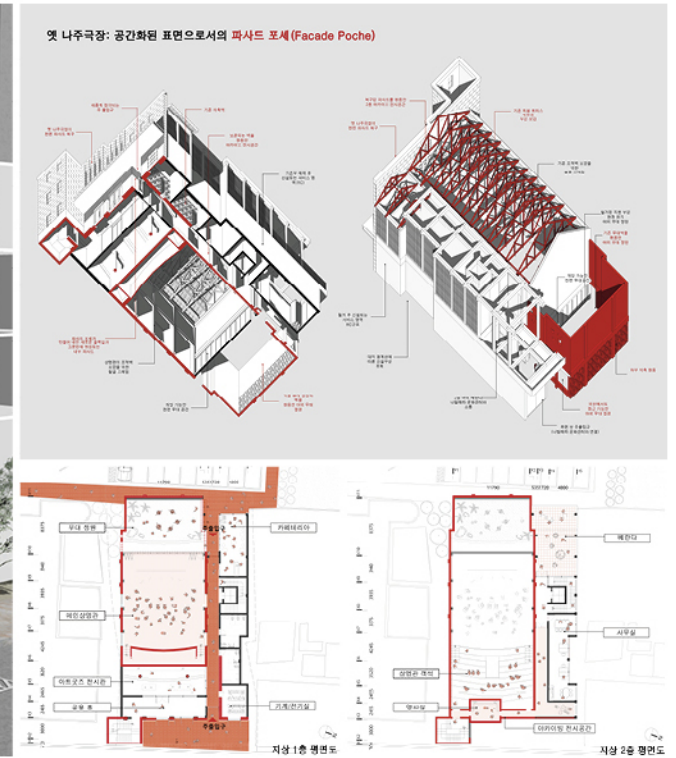
심사위원 : 권현아(목포대), 김미선(동신대), 김주경(오우재건축), 선행종(한길건축), 임승원(전남대)

-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동 14-1 외 1필지
- 대지면적 : 774㎡
- 연 면 적 : 700.00㎡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규 모 : 지상 2층
- 예정공사비 : 2,588,372천원

당 선 작 :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입상작-1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입상작-2 :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입상작-3 : 유민 건축사사무소
 입상작-4 : 제이포 건축사사무소
 * 입상작-2 자료 미제출, 입상작-4 미제재

당선작

우지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텍톤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입상작-1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입상작-3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 _ 사람들이 몰려드는 ‘페르소나 공간’의 비밀

김난도, 최지혜, 이수진, 이항은 저 / 다산북스 / 2022. 2. 25.

나는 2022년도에 더현대 서울 백화점을 접하였다. 그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화점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이었다. 백화점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 밖과는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더현대 서울 백화점의 사운즈 포레스트라는 공간은 백화점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연과 함께 쇼핑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주었다. 또한 백화점의 외관 디자인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물의 모양이 아니었으며 빨간색의 기둥들이 눈에 띄었다.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 나는 더현대 서울에 관한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더현대 서울 인사이트>는 더현대 서울이라는 렌즈를 통해 새로운 자기 정체성과 타깃 고객을 설정하고, 공간, 머천다이징, 커뮤니케이션, 리테일테크까지 페르소나 공간 전략의 개념과 실제, 중요성까지 살펴볼 수 있는 책이며 온-오프의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하이브리드 채널의 시대를 대응해야 하는 모두의 전략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PART 1 아이덴티티: 전에 없이 새로운이라는 장으로 시작한다. 2020년, 유례없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은 한순간에 달라졌다. 접촉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로 자연스럽게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가피하고도 폭발적인 전이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유통 공룡이라고 불렸던 대형 오프라인 점포들마저 잇따라 몸집을 줄이며 오프라인의 몰락이 예견되는 듯했다. 예측 불가능한 뉴노멀 시대에 브랜드의 혁신적인 생각과 고집으로 새로운 오프라인 플랫폼의 비전을 보여준 '더현대 서울'의 성공 요인에 대해 되짚어보며, PART 2에서는 공간 디자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구조와 공간 기획, 콘셉트가 등대인 외관 디자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기본설계, 통일되면서도 다양한 인테리어, 새가 날아드는 듯한 느낌을 준 조경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PART 3·4·5에서는 고객 분석, 고객 동선, 고객 응대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리테일테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다.

언택트 시대, 산업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뉴리테일의 시대에 우리는 고객이 어떤 공간에서 가슴 설레고, 어떤 장소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곳은 나의 공간'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투사할 수 있는 확고한 취향을 가진 공간만이 가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을 '페르소나 공간'이라고 새롭게 명명한다. 여기서 페르소나 공간이란, 공간이 이용자의 페르소나에 부합하는 개인적 취향, 흥미, 가치관, 라이프스타일 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다. 나아가 고객이 공간에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공간을 말한다. 공간을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페르소나 공간'으로 변신해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더현대 서울의 성공은 자기 정체성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공간 전략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언택트 시대, 산업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페르소나 공간'의 비밀이 궁금한 사람들, 더현대 서울 백화점을 가보고 이 건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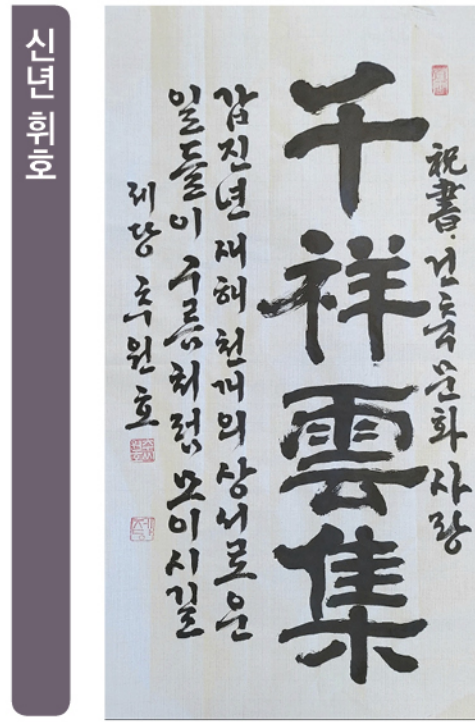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Nakanoshima Children's Book Forest (Ando Tadao, 2020)

일본 오사카 / 2023년 7월 28일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시대그림

태신중공업(주)

ES빔 철골공법

Economic Steel Beam

구조설계 무상지원

- 2022년 매출액 : 260억원(시평액 : 123억원)
- 고층빌딩, 물류창고, 주차장, 공장 등 다양한 시공 실적 보유
- 공장 내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신용보증 업무시설 및 주차빌딩 신축

상징 자이언트파크 신축

태신중공업 담양 1공장 (면적: 6,930㎡(2,100평))

태신중공업 담양 2공장 (면적: 7,189㎡(2,175평))

ES빔 철골구조

단차부위를 설비배관 통로로 사용하여 층고가 낮아짐 (천정고는 높아짐)

일반 철골구조

설비배관 설치로 층고가 높아짐 (천정고는 낮아짐)

ES빔 철골공법 특징

- 철골공사 15~45% 평가절감
- 내부기둥을 최소한 확보한 철골공법
- 시공성 용이
- 공사기간 단축
- 구조기술사협회 기술인증서보유 (태신중공업 7건)

The 큰 믿음을 주는 기업

태신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대곤

본사·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예곡산단5로 39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33, 사업화 4동 204호
 TEL. 061.818.1700 FAX. 061.818.1701
 H.P. 010.5517.5704 E-mail. esbeam@daum.net